

교회의 기능(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

3/4 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0:28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엡 2:21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고전 1:2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고전 3:16-17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0:32

32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벧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공훈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 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 교회는 우주적이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하는데, 그 지방들 중 하나가 고린도였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지방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장소에 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놀랍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이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9-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 하나님의 집이다(벧전 2:5). ... ‘오이코스(oikos)’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집 또는 거처라는 뜻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도 있다. ‘오이코스’는 집과,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 즉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또한 가족으로 번역할 수 있다(엡 2:19).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이다. 또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있으신데, 이 가족도 교회이다. ... 우리에게 집과 가족은 별개의 것이다. 집은 건물이고, 가족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은 동일하다. 집이 가족이고, 가족이 집이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은 한 실체, 곧 하나님 자신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이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온 존재가 내주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 이것은 사람들의 무리나 조직과는 다르다. 이것은 유기적인 것, 즉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이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유기적이며, 삼일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매우 많이 강조하지만, 교회의 유기적인 방면은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집이다. 바울은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딤후 3:15), 이 집이 자라가고 있다고 말한다(엡 2:21). ... 어떤 것이 자라려면 살아 있어야 한다. ... 자라는 것은 다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라고 있다!

1964년에 나는 텍사스주의 플레인뷰에 가서 적은 무리의 성도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텍사스주의 웨이코에 가서 또 다른 적은 무리를 방문했다.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완전히 실망했을 것이다. 그 소식이 뉴욕에 전해졌을 때, 나와 오랫동안 동역했던 한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텍사스주에 있는 이 적은 무리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1968년에 나는 텍사스주의 러벅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는 큰 교회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많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보았다. 주님의 공훈로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텍사스주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1969년에 휴스턴으로 이주하였고, 나는 그들을 방문하러 갔다. 그 상황은 격려를

주는 면도 약간 있었으나,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2 년과 1983 년에 나는 어빙을 방문하고 고무되었다. 텍사스주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큰 성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집이다. 그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은 생명에 의한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성경의 기본 계시, 5 장, 554-555 쪽)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의 가정, 그분의 가족이며, 그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서 그분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8, 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3 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함, 8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년, 2 권, 지방 교회들의 중요성과 실행과 현황, 9 장

3/5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고전 3:16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요 17:14, 16

14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입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1:12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구약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분리된 것들이었지만, 그 성취인 신약에서 거처와 가족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가족이다.

히브리서 3 장 6 절은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집이었는데(레 22:18, 민 12:7),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막 또는 성전으로 상징되었다(출 25:8, 겔 37:26-27).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의 예표이다(고전 9:24-10:11).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교회의 예표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8, 47-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는 교회가 몸이며, 하나님께는 교회가 집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교회는 머리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의 한 가지 기능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집이다.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이다.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 있는 실체, 곧 살아 있는 집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절인 베드로전서 4 장 17 절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정은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하나님은 이 집, 곧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에서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거역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신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했다.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단지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주관적인 분이셔야 한다. ...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살아 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며 일한다. 살아 있는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회와 봉사와 사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움직이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 이것은 교회가 아버지의 실재 안에서 살아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생명과 실재 안에 있는 그분의 많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구성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과 실재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는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에서 분리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아버지는 가정 곧 집에서 분리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교회의 신분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회중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다. ...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즉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어떤 사람도 그분의 집의 일부, 즉 그분의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없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8, 48-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0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61;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3

3/6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5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엡 2:21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엡 2:19, 22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히 3:6

6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벧전 2:2-3

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3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 13:31-32

31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32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 장 15 절에서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가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 하나님의 가족,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다. 집과 가족은 동일한 것이며 믿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엡 2:19, 히 3:6).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이 집의 실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엡 2:22).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서 살아 계신 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5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에베소서 2 장 22 절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 바울은 한 지방에 있는 성도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 이 거처 안에서 사시며 움직이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곳이다. ...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우리의 집을 통해 표현된다. ...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집, 곧 그분의 거처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디모데전서 3 장 16 절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내신 것임을 계시한다. ... 그분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고, 그분의 갈망을 말해 내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온 존재,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것, 그분께서 얻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거처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될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22 절은 하나님의 거처가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을 가리키며, 거처를 가리키지 않는다.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처소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마음이나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 조금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 곧 하나님의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에서 ‘영적인’이라는 말은 살아 있고 성장하는 신성한 생명의 특징을 가리킨다(2 절). 하나님의 집은 주로 신성한 생명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적인 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 자라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목표는 영적인 돌들로 건축된 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 돌들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흩어진 돌들이 아니고, 다만 한 무더기로 쌓여 있는 돌들도 아니며, 서로 건축된 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젖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벧전 2:2-3)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이다. 성장은 바로 건축을 위한 것이다. 말씀의 양육하는 젖은 생각을 통하여 받아들여져서 혼을 양육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영을 양육한다. 그 결과 우리는 혼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에 알맞게 된다.

에베소서 2 장 21 절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소, 곧 성전의 내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자라고 있다. …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건축물 전체는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 권, 교회, 메시지 208, 50-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3/7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 8:32, 36

32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요일 1:1-2

1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딤후 1:10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딤후 2:15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딤후 6:19

19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 장 19 절에서 바울은 “...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으며, 거기에는 이러한 말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선포한다. …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인 교회를 가리킨다(비교 딤후 2:15, 18, 25). 이 기초는 ‘진리의 기반’(딤후 3:15)과 일치하는데, 이 기반은 진리,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행 4:33)를 붙들어 주고 지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건축된다.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히 7:16, 행 2:24), 어떤 근원에서 온 것이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락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로서, 어떠한 이단에도 맞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이단이 들어오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성 종양이 퍼질지라도 이 견고한 기초는 건더 낸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은 주로 네 기둥인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복음 위에 세워진다. 기독교가 하락한 원인은 진리가 상실되었고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4 장 6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에서 실재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생명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와 생명은 모두 주님 자신이지만, 주님의 서로 다른 두 방면이다. 그 차이는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고,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만, 생명의 체험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설명이 진리이다. 우리가 이 설명에 따라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생명으로 누릴 길이 없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오늘날 주님의 모든 진리는 성경에 담겨 있다. ... 우리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이 생명의 책인 까닭은 그 내용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체험이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 안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얻어야 한다. 성경 안의 모든 진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이다.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지식은 사실상 진리이며, 이 진리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문자만을 연구할 뿐 그 안에 담긴 내재적인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독자들은 말씀의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진리를 보아야 한다. 진리를 보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을 만지게 된다. 《라이프 스타디》가 출간된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 《라이프 스타디》는 참된 생명 공급을 얻도록 우리를 성경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 준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진리와 생명의 회복이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의 하락이 기독교가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기인함을 알고 있다.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와 생명을 상실한 결과, 결국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조직들을 만들었다. 주님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방법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주님은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내용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서 자라시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5권, 주님의 회복의 네 가지 큰 기둥 - 진리, 생명, 교회, 복음, 6장, 515-5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경의 본모습과 중심을 읽어 뵙, 2-3 장

3/8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18:37

37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딤후 3:15-16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골 2:2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엠편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들 가운데서 진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더욱 높아지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평안과 번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비교적 깊이 않은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진리들은 옳지만, 다만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시작 단계의 진리일 뿐이다. 우리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 한다. ...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본질적인 영, 경륜적인 영, 삼일 하나님의 분배와 같은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모두 이런 것들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의 말은 진실하고 논리적이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방면에서 젊은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추천하고 권장할 부담을 갖는 이유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5권, 주님의 회복의 네 가지 큰 기둥 - 진리, 생명, 교회, 복음, 1장, 459-46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은유적으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한다(딤후 2:15).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고, 기반은 기둥을 붙들어 준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 주는 기반이다. ...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경륜의 실재와 내용이다. 이러한 경륜은 두 비밀,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골 2:2)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엠편 3:4)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과 실재이다. 교회는 이 모든 실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 주는 기반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진리 곧 실재를 붙들어 주고 지탱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교회는 우주의 실재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온 존재를 떠받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교회는 교리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존재의 실재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만이 실재이다. 그분의 온 존재가 실재이고, 그 실재는 교회가 지탱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과 가족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온 존재의 실재를 붙들어 주고 있다.

교회가 지탱하는 진리는 삼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체현과 중심과 표현으로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골 2:9, 엠편 1:22-23, 4:16, 딤후전 3:15, 요 3:3, 5). 진리 곧 실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다. 교회는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재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요 1:14, 17, 14:6).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를 지탱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진리’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참되고 견고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 그러나 진리는 단지 견고한 실재만이 아니라 이 실재의 표현이기도 하다. 진리는 공허한 교리가 아니라 실재의 표현이다. 곧 실재로 구성되고 그 실재를 전달하는 교리이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 즉 실재의 표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교회가 지탱하는 실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계시된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15절에 있는 진리, 곧 실재의 표현은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다. ...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 하나님은 실재이셨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3, 254-2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3단계, 4권, 57과

3/9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

1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딤후전 2:4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딤후 2:19, 25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으며, 거기에는 이러한 말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25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면,

엡 4:13-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실재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 하늘에 속한 빛 비춤과 개인적인 체험이 더해질 때 오는 것이다. ... 실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시간을 들임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경의 교리들에 친숙해져야 한다. 빛 비춤을 받기 위한 토대는 교리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다. 그다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고,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 ... 일단 우리가 주님의 빛에 의해서 실재를 본다면, 그 실재는 우리의 체험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

모든 형제자매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합당한 실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함, 8장, 439쪽)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한다. 장로들과 인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포함한 교회 전체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다. 고대의 건축물들은 기반 위에 놓인 각각의 기둥이나 원주가 건축물을 지탱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를 붙들어 주는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자신에게 진리를 붙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물러간 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것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 ... 베드로에 비해 바울은 젊은 사도였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가 진리에 어긋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바울의 위치에 있었다면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을 것이다. ... 그러나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갈 2:11)라고 기록했다. 베드로가 나이도 체험도 더 많았지만, 그 당시에 진리에 따르지 않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진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었다.

성경은 사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는 교회가 진리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모든 성도가 진리를 지탱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하지 않을뿐더러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은 채 장로들에게 다 맡기는, 그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가련한 교회이다.

한 형제가 말할 때 모든 성도는 그가 진리에 따라 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비교 고전 14:29).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는 진리를 붙들기 위해 일어서서 무언가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자매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딤후 3:15)라고 말한다. ...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로 결심해야 한다. ... 교회가 새로운 지방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도자들이 필요하다. ... 만일 우리가 매일의 교회생활에서 진리를 배우고 실행한다면, 모든 지체가 얼마씩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퍼져 나가든 문제가 없을 것이며,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강해질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7장, 919-923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7-8장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3/10 주일

아침의 누림

엠편 4:17-25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863 (英) 일상 생활과
집회에서도 (中:627)

1 일상생활과 집회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니
형식과 교리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해 모이네.

2 그리스도는 길과 빛이니 그 안에 살고 그를 따르리
그분이 양식 생수이시니 늘 먹고 마셔 양육받겠네.

3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 늘 증언하고 공급하겠네
그리스도가 주와 머리니 주 찬양하고 높이 올리세.

4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도 주 모두 안에 모두 되시네
교회의 실재 내용 되시며 생명과 인수 증가케 하네.

5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 그리스도의 실재 표현해
영 안의 모든 교통과 봉사 다 주를 나타내는 것일세.

6 주 이름 안에 우리 모일 때 기쁨 바름을 따라 기도해
생각과 형식 따르지 않고 영 사용하여 주를 표현해.

7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숙되도록 그를 적용해
주 위해 모두 잃어버리고 영원히 주가 모든 것 되게.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10-1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3-4**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Superiority of the Son

Scripture: Heb. 1:4-14; 3:1-6; 4:14-5:10; 6:20-7:2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4, 7, 15Supplemental Reading: *A General Sketch of the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Christ and the Church (part 3—Hebrews through Jude)*, chs. 24-25

Questions:

1. Explain concisely how the Son is superior to angels, to Moses, and to Aaron.
2. In the New Testament, what are some examples where some made the Son inferior in their evaluation?
3. What are some things in our Christian life that can undermine the superiority of the Son in our evaluation?
4. Where in the Old Testament is Jesus Christ as the Son revealed?